

지역 소식통



완주 시나브로 치유길

치유힐링여행 성료

완주군이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기획한 '완주 시나브로 치유길 노르딕 워킹 치유힐링 여행' 관광상품을 구이저수지 둘레길 일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5~6월 동안 구이저수지 둘레길 일원에서 진행됐다.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자연이 주는 여유와 심신의 치유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특화 관광상품이다.

행사는 당일형 여행으로 2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서울·경기·경남·전북·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80여 명이 참여해 '시나브로' 브랜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완주군은 이번 '시나브로 치유길'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년간 특화 치유 관광상품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콘셉트의 힐링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SNS 전용 채널을 개설해 숏폼 영상 콘텐츠와 인접 관광지원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한다.

시는 오는 8일부터 8월 24일까지 41일간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개장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단, 매주 월요일은 안전점검과 시설 정비를 위해 휴장하고 우천시에는 안전을 위해 운영을 하지 않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공공기관 등 대상
실무형 생성 AI교육 '인기'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급변하는 AI 시대에 발맞춰 2025년 교육부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일반 직장인 대상 실무형 생성 AI 교육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공부문의 AI 실무 적용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별 맞춤형 초거대 AI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실험의 실무중심에 있는 공공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총 3기 과정으로 오는 4월까지 운영된다.

특히 정부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협업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방향에 맞춰 실무중심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사랑상품권 운영 변경

지난달 25일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 따라
시, 올해 발행액 총 1000억원 규모로 확대... 구매한도 늘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역 내 소비촉진과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이달부터 김제사랑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및 가맹점 예의 등록 등 운영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5일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로,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 부응해 김제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방식을 신속히 조정해 7월부터 시행에 나선 것이다.

김제사랑상품권은 당초 2025년 발행 목표액이 600억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지방비를 추가 매칭함으로써 총 1,000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할 계획이다.

상품권 1,000억원 발행을 목표로 월

구매한도는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지류 구매한도도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운영한다. 월 구매한도는 지류형과 카드형 상품권의 합산 금액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현장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카드형 상품권 보유한도도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상품권 소비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연 매출액 30억 초과로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던 면 소재의 일부 농협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가맹점 등록을 추진한다.

가맹점 예의 등록 조건은 민간 농자재판매소가 없는 면의 농협 농자재판매장, 마트·슈퍼·편의점 가맹점이 없는 면의 하나로마트이며 오는 4월까지 가맹점 신청을 받아 등록할 예정이다. 가맹점 목록은 오는 4월 이후 김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상품권 운영변경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사랑상품권은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체감 혜택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어린이 · 청소년이 제안하고 완주군이 실행

군 어린이 · 청소년의회 제안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6개월간 준비 거쳐 본격 시행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가 제안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정책이 실제 군정에 반영돼 주목을 받고 있다.

2일 완주군에 따르면 제8대 어린이·청소년의회가 2024년 12월 정책발표회에서 제안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이서문화체육센터 설치' 정책이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설치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일명 네프론)는 인공지능 이미지 센싱 기술을 활용해 투명 페트병 등 순환자원을 자동 판별해 수거하는 자원순환 로봇이다.

이용자는 1병당 1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일정 포인트 이상 모으면 현금 환전도 가능하다. 네프론은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하며, '수퍼빈' 어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이서문화체육센터 정문 앞에 기기가 설치됐다.



제8대 어린이·청소년의회가 2024년 12월 정책발표회에서 제안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이서문화체육센터 설치' 정책이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이서문화체육센터 정문 앞에 기기가 설치됐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기존에 운영하던 3개소(삼례읍 완주군보건소, 봉동읍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서면 공취팔취도서관)를 포함해 무인회수기 완주군립중앙도서관(용진읍)과 이서문화체육센터(이서면) 총 5대를 운영하게 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어린이·청소년

의회에서 제안한 정책이 실제 군정에 반영돼 실행으로 이어진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처럼 청소년의 창의적인 제안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넓히고, 아이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시민 신뢰 세정 서비스 구현 박차

재정 건전성 확보 · 납세자 중심 편의시책 균형있게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역 재정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징수 전략으로 건전재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세정과는 지난 2024년부터 기존의 징수 활동을 전면 재점검하고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교부세 자체노력도 항목에서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립도 향상을 위한 지주재원은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기능한다.

이를 위해 세정과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를 목표로, 세목별 징수율과 체납자 유형 등을 정밀 분석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단순 체납 건수 감소가 아닌 실질적인 징수를 상상에 초점을 맞춰 새롭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힘썼다.

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적인 징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체납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산, 차량, 예금 등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 추심 등 적법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고객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징수 대책을 확립

해 나가고 있으며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분할 납부 유도 등 납세자 맞춤형 지원도 병행해 징수의 실효성을 높였다. 체납액 축소를 위한 노력 외에도, 납기 내 징수를 향상을 위해 지방세 시스템에 휴대전화 번호가 등록된 납세자에게 정기분 및 수시분 납부 안내 문자를 월 2~3회 일괄 발송하고 있으며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지방세 납부 관련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탑 운영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하며 체납액 축소 및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전북도 지방세정 중합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지방세의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우수한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몇 년간 보통교부세에서 패널티가 발생했던 점을 감안할 때 2026년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인센티브 확보가 기대되고 있으며, 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센티브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이처럼 재정 건전성 확보와 납세자 중심의 편의 시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 서비스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과거 부진했던 실적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조직 전체가 한마음으로 문제 해결에 임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긍정적인 세정 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시책 발굴과 징수를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문화선도산단

에디터 1기 참여자 모집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산업단지의 일상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문인의 시선으로 기록하는 콘텐츠 프로젝트 '산단 에디터 1기 - 일상의 단지'를 본격 추진하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7월 오후 5시까지이며, 콘텐츠 제작 및 SNS 활동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최종 선정 인원은 약 50명 내외로,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500자 내의 글과 사진 3장 이상을 제출하는 글·사진 콘텐츠 부문, 1분 내의 숏폼 영상(릴스, 숏츠 등) 형식의 영상 콘텐츠 부문으로 나뉜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문화재단 문화선도산단운영팀(☎070-4291-76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시원한 계곡 물소리 따라 떠나는 특별한 여름 축제’

5~6일 완주 동상 대아천 계곡서 '동상계곡 물소리축제'
워터슬라이드 설치 수영장 · 공연 · 체험행사 등 마련

완주군 동상면이 여름 무더위를 날릴 특별한 축제를 마련했다.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동상면 대아천 계곡(대아수목로 379-4) 일원에서 '제3회 동상계곡 물소리축제'가 열린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방문객들이 계곡의 청량함을 만끽하며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다채롭게 구성됐다.

행사장에는 대형 워터슬라이드가 설치된 수영장이 마련돼 아이들이 마음껏 물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페이스 페인팅, 슈팅클스, 썬캡·부채·에코백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문화공연도 축제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릴 예정이다. 동상생활문화센터의 색소폰과 풍물 공연을 비롯해 (사)타악연희원 아귀의 신나는 난타 공연, 초청가수 현진우의 무대, 한양무용 예술학원생들의 댄스공연과 환상적인 버블쇼가 펼쳐진다.

물풍선 반기, 물병 세우기, 신발 멀리 던지기 등 가족이 함께 즐기는 게임과 즉석 노래 및 댄스 경연 등 관객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돼 다양한 경품과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축제에는 동상면 주민들이 직접 만든 캐릭터 '동상이'가 축제의 마스코트로 처음 등장한다.

동상이는 곳곳 모양 수영모자를 쓰고 물놀이하는 아이를 형상화한 캐릭터로, 동상면의 대표 특산물인 귤감과



계곡 물을 모티브로 삼았다. 동상이는 영상, 리플릿, 포토존, 부채, 배지 등 축제 곳곳에서 방문객을 맞이하며 특별한 즐거움을 더한다.

유경태 물소리축제 추진위원장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 시원한 계곡의 물소리와 함께 자연 속에서 진정한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축제에 많은 분들을 초대한다"고 전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축제가 지역 주민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고, 외부 방문객에게는 동상면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관광자원과 주민의 아이디어를 결합한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는 2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김희옥 부시장, 주요 18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 주요부서 업무협의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제지평선축제 준비 '차질 없이'

김제시, 축제 주요부서 2차 간담회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명예문화관광축제이며 2025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축제인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2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주요 18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 주요부서 업무협의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평선축제기획단장인 김희옥 부시장의 주재로 축제 담당부서 홍보축제실장의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교통, 시설, 경관, 주요 공연 프로그램 등의 사전 준비 사항 및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와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이 도출돼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올해 지평선축제가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8~12일 진행됨에 따라 관공특수를 활용하기 위한 세대별, 타깃별 신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과 지역 역사와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 있는 소재를 발굴해 김제지평선축제의 정체성 확립 등 개선 사항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김희옥 부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올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고, 중장기적 과제도 사전에 대비하여 김제지평선축제가 국내 관광객을 넘어 해외 관광객의 마음까지 사로잡아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시는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 진행을 위해 지난 6월 11일 1차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공공일자리아업 참여자 안전보건교육

안전사고 사전 예방 등 위해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일, 2025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아업 추진에 앞서 사업담당자 및 공공일자리아업 참여자 159명(공공근로 124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35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름철 무더위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참여자들의 안전의

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폭염 대응 요령, 근골격계 질환 예방, 응급상황 대처법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공공일자리아업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